

일본의 기업가정신 육성제도 및 그 운용시스템 조사

- 양현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I. 개 요

1. 출장자 : 양현봉(중소·벤처기업실 연구위원)
2. 출장지역 : 일본 동경
3. 출장기간 : 2008. 5. 26 ~ 2008. 5. 31
4. 출장목적 : 용역과제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을 위한 일본의 기업가정신 육성시책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II. 방문 일정 및 기관, 면담자

< 5월 26일 >

○ 서울 출발 → 일본 동경 도착

○ 중진공 일본사무소 방문

- 면 담 자 : 양해진 소장, 정진 과장, 문준영 과장

< 5월 27일 >

○ 방문기관 : 東京商工會議所

- 면 담 자 : 清水 力 調査役, 中村 友樹 經營相談 副主任 外 2人

○ 방문기관 : (財) 商工總合研究所

- 면 담 자 : 三浦 敏 主任研究員, 島田 弘 事務局長

< 5월 28일 >

○ 방문기관 :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 면 담 자 : 檜山 昭信 課長

○ 방문기관 : 日本 中小企業廳

○ 면 담 자 : 北村 貴直 係長, 火口 知子 係長

< 5월 29일 >

○ 방문기관 : 日本 經濟産業省

- 면 담 자 : 宮川 正 經濟産業政策課長, 吾郷 進平 新規産業室長

○ 방문기관 : 早稻田大學 産學官研究推進센터

- 면 담 자 : 池田 泉 主任

< 5월 30일 >

○ 방문기관 : 日本新規事業支援機關協議會事務局

- 면 담 자 : 梶川 義實 副長

○ 방문기관 : 慶應大學 總合研究推進機構 研究支援센터

- 면 담 자 : 伏見 知行 課長, 磯田 美穗 係長

< 5월 31일 >

○ 일본 동경 출발 - 서울 도착

Ⅲ. 출장결과 주요 보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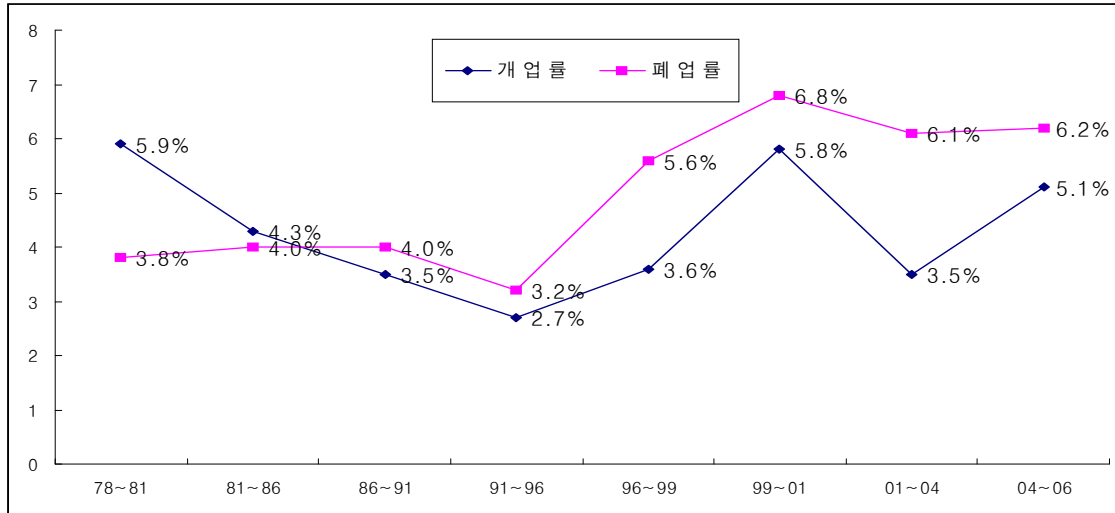
○ 일본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 < 별첨 자료 > 참조

<별첨> 일본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1. 창업 실태

- 최근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기회복 체감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기업은 수출증대와 함께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정부는 지난 10년간 창업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육성프로그램 운영,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신규창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용자제도 도입 등 각종 규제완화 및 창업촉진제도를 정비해 오고 있음.
-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창업촉진정책과 IT붐에 편승하여 IT·서비스 관련 벤처기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개업률(현시점의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신규 기업수의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등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최근의 IT붐과 일본정부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최저자본금규제특례제도’ 및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1엔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각종 규제개혁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렇지만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저변의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 창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그림 1 > 일본의 개·폐업률 추이(기업수 기준, 비1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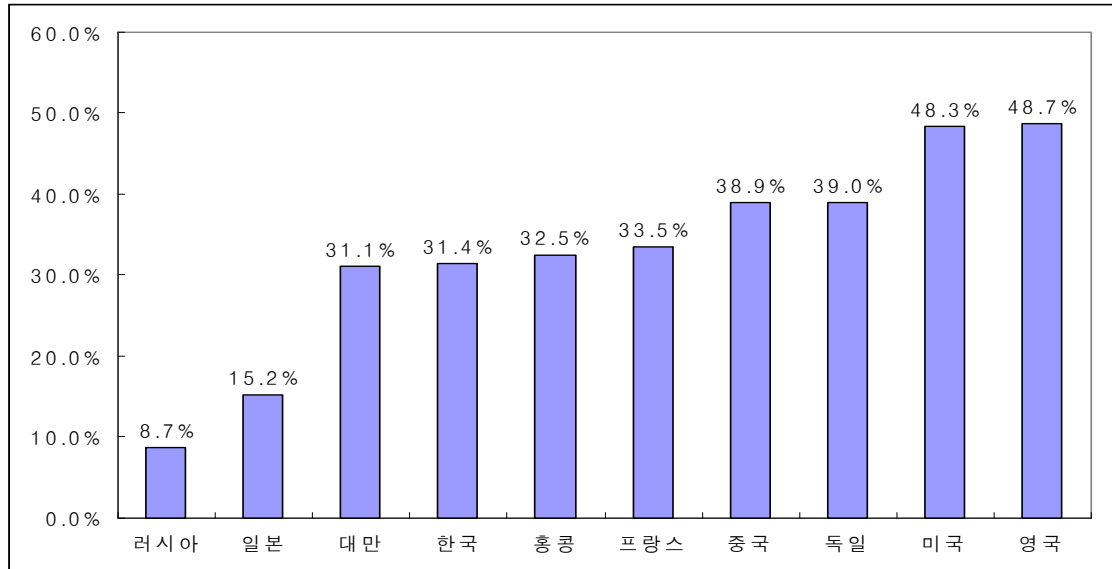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2008년도 중소기업백서」, 2008.

2. 기업가정신의 현상과 육성정책(사업)의 주요내용

(1) 기업가정신의 현상

- 우선 일본은 여타 국가에 비해 기업가정신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7년) 자료에 따르면, 18세부터 64세 인구 중 기업가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일본은 러시아보다 높으나, 구미 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에 비해서도 매우 낮게 나타남.
 - 기업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 영국, 48.7%, 미국 48.3%, 독일 39.0%, 중국 38.9%, 대만 31.4%, 한국 31.4%, 일본 15.2%, 러시아 8.7%

< 그림 2 > 기업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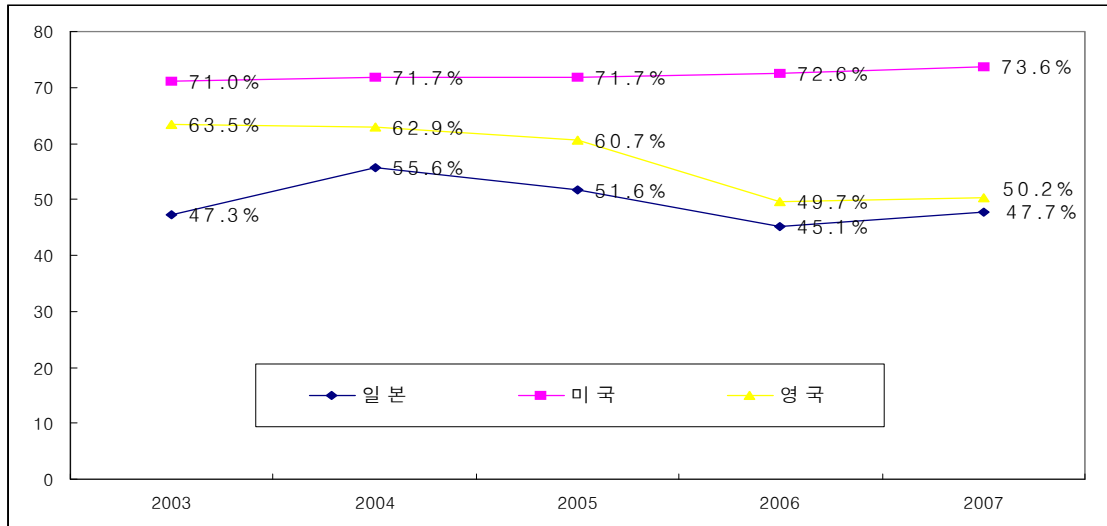


자료 : BABSON & London Business School,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7 Executive Report」, 2007.

주 : 한국·대만은 2002년도, 독일은 2006년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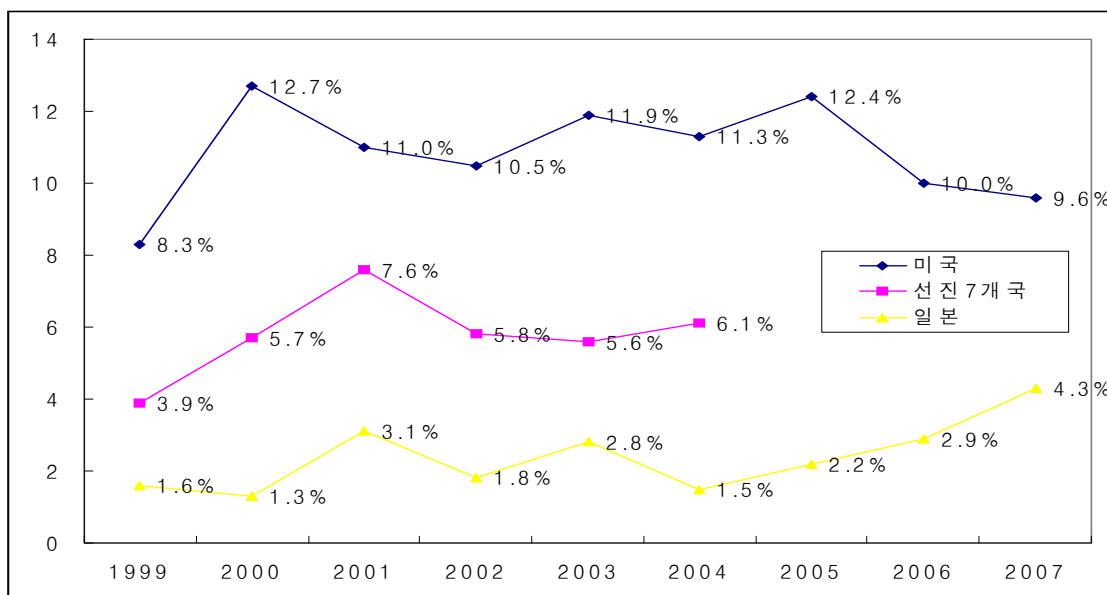
- 또한 성공한 기업가를 존경하는 사람(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지위 평가)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 영국과 비교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5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2007년도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업가를 존경하는 사람의 비율)에 있어 미국은 73.6%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47.7%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이처럼 일본의 기업가정신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창업활동률(GEM의 TAE, 18~64세 인구 중 창업 준비중인 자 및 창업 후 42개월 이내인 자의 비율) 또한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그림 4> 참조).

< 그림 3 >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지위 평가(성공 기업가 존경 비율)



자료 : BABSON & London Business School,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7 Executive Report」, 2007.

< 그림 4 > 창업활동률(TEA) 추이



자료 : BABSON & London Business School,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7 Executive Report」, 각 연도.

주 : TEA(Total Entrepreneurship Aactivity=18~ 64세 인구 중 창업
준비중인 자 및 창업 후 42개월 이내인 자의 비율)

(2) 기업가정신 육성 정책(사업)의 주요내용

- 일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가정신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1999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발 벤처기업 육성, 엔젤자금 확충, 창업보육센터 지원, 회사설립 규제완화, 벤처창업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기업가에게 필요한 마인드와 자질을 육성시킴에 의해 기업가(창업자)를 확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기업가 마인드와 기업가 스킬)은 기업가라는 경력개발경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제·사회조직 안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업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것임.
 - 기업가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비전과 꿈, 도전정신, 창조성, 결단력, 위험에 대한 인내, 낙관주의, 리더쉽 등이며,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스킬로는 대화능력, 기획능력, 위험관리능력, 조정능력 등임.

< 표 1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

기업가 마인드	기업가 스킬
·비전과 꿈 ·도전정신 ·창조성 ·결단력 ·위험에 대한 인내 ·낙관주의 ·리더쉽 ·팀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구상기획능력 ·위험관리능력 ·조정능력 ·창업·성장을 위한 법률·재무·금융 등의 지식 ·어학능력 등

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 교육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 중 도전정신, 창조성 등은 사람들의 의식·가치관이나 행동양식과 깊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배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문부과학성 등 4개 省廳은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06년 공립중학교의 직장체험 실시율은 94.1%(10,124개 학교중 9,528개교), 공립고등학교의 인턴쉽 실시율은 62.0%(4,699개 학교 중 2,914개교)로 조사됨.
- ※ 여기서 Career path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장래에 목표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임.
- 경제산업성은 초·중·고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999~2005년까지 다음과 같은 기업가교육 지원사업을

모델(시범)사업으로 실시함.

-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기업가 교육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매뉴얼 개발사업
- 벤처기업 경영자 등의 초·중·고등학교 파견 및 학교 교원의 벤처기업 연수사업
- 초·중·고생의 참가·체험형 기업가교육 프로그램 모델사업
- 기업가 교육에 공헌한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등

※ 여기서 기업가교육이란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능력’을 육성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생각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임.

○ 이 같은 정부 부처의 기업가 교육사업 실시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참가·체험형 기업가교육 프로그램 모델사업’의 경우, 2002~2006년 기간동안 833개 학교에서 6만 8,923명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 > 기업가교육과 경력개발교육의 비교

	기업가교육	경력개발교육
개념	기업가교육이란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적 능력’을 교육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임.	경력개발교육이란 ‘직업개념’에 기초하여, ‘학생 개개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각에게 적합한 경력을 형성해 가기 위해 필요한 의욕·태도나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임. 단적으로 말하면 학생 개개인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교육임.
	기업가교육으로 기대되는 능력의 예 <기업가정신> ·도전정신, 의지, 정열, 용기 <기업가적 능력> ·꿈을 그리는 능력 ·꿈을 전달하는 능력 ·꿈을 실현하는 능력	경력개발에 관한 제능력의 예 ·인간관계 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장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

②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 교육

- 일본의 개업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 교육 부족이 지적되어 있음.
 - 중소기업총합사업단이 200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18세 ~ 65세) 중 대학·대학원에서 기업가 양성과정을 수강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1.6%에 불과하였음.
 - 참고로, EU의 설문조사(2007년)에 의하면, EU에서는 풀타임 학생의 34%, 미국에서는 풀타임 학생의 13%가 기업가교육을 수강했다고 응답함.
- 일본의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교육은 미국·EU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기업가 교육과목을 도입하고 있는 대학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쓰쿠바대학의 조사(2003년)에 따르면, 전국 700개 대학 중 약 40%(281개 대학)가 기업가 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大和總合研究所(2007년)가 와세다 대학 등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가 교육강좌의 2/3는 MBA나 MOT 등 주로 대학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기업가강좌 개설 수는 2005년 71개, 2006년 131개, 2007년 151개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일반인 대상 기업가 교육

- 일반인 대상 기업가교육은 1999년부터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단기집중 연수과정(창업스쿨=강좌, 세미나 등)을 전국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음.
- 동경상공회의소 중소기업상담센터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주부·학생 등 창업예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창업지원세미나사업’, 자금조달과 사업계획수립·회사설립 등 구체적인 창업준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상담·지도사업’, 창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상호교류사업’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창업지원세미나사업의 경우, 주말창업교실, 일과 후 테마별 창업교실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신규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나 창업시 해결해야 할 세무·회계·자금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1996~2006년까지 9만명(연 7,500명) 이상이 수강하였으며, 수료자 중 27.3%가 창업지원사업 참가 후 실제 창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일반인 대상 기업가 교육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창업검토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회사설립절차·세무·법무·경리 등에 관한 인터넷 상담, 기업가 밀착형 인턴쉽 등을 통해 기업가교육·지원사업(Dream gate)을 실시함과 아울러,
 - 창업 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대학발 벤처창업 지원

-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음.
-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산학협력의 일환으로서 혹은 신산업창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대학발 벤처기업의 수는 2001년 5월 발표한 「대학발 벤처 -1000사 계획」 등에 의해 2006년말 현재 1,590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598개사) 대비 2.7배나 증가함.
 - 대학발 벤처기업 수 : 1988년 39개 → 1998년 203개 → 2001년 598개 → 2006년 1,590개
-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정 수익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등 다양함.

- 그런데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은 창업 이후 제품화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에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같은 대학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우선 대학 OB 조직에 의한 OB인재 등을 활용한 경영면에서의 어드바이스,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인재교류 촉진과 그 인재의 연구성과에 기인한 사업화지원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대학발 벤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대부분은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이지만, 그와 같은 시장 창출이나 판로개척이 쉽지 않으므로, 대학은 그 제품에 대한 고객이나 시장의 평가를 높여주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대학발 벤처가 창업초기에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대학발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원(엔젤) 확충

- 위험이 높은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엔젤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은 창업 초기의 위험 자금 출자라고 하는 금융적 의미뿐만 아니라, 엔젤투자자에 의한 경영 참가나 주주로서의 조언에 의해, 엔젤투자자가 갖는 사업경험

이나 전문지식 등이 벤처기업의 사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엔젤 투자자는 성공한 기업경영자 등 고액소득자나 자산가에 한정되지 않음.
-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엔젤세제 강화 및 엔젤네트워크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① 엔젤세제 지원 강화

- 일본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엔젤투자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조치(엔젤세제)를 마련함.
- 1997년부터 엔젤세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몇 차례 개정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시행해오고 있음.
 - 엔젤투자자가 당해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서 이익을 낸 경우, 양도차익을 50% 차감하는 조치
 - 엔젤투자자가 당해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 3년간 인정하는 조치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젤 세제 이용이 저조하여 2006년도 엔젤투자액이 13억엔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됨.
- 일본정부는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2008년도 세제개정 중 엔젤세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즉, 회사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에 엔젤투자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 엔젤투자액을 엔젤투자

자의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투자시점에서는 (출자액-5천엔)을 그 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상한 : 총소득금액×40%와 1,000만엔 중 작은 금액)하며, 매각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 3년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 엔젤네트워크 확대

- 엔젤투자자의 일부는 투자정보 획득이나 투자 노하우 등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엔젤네트워크라는 투자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엔젤 네트워크의 활동은 개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법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엔젤투자 확대에 큰 효과를 갖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개인투자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도 사업경험이나 다른 전문성을 갖는 엔젤 네트워크 모임에 의해 다양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고, 투자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일본은 엔젤포럼 등을 통해 엔젤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4) 창업인프라(BI) 구축 지원

- 일본 정부는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리고 성공적인 신사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창업보육사업(Business Incubator)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보육사업은 1999년 신사업창출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됨.
- 1999년 30개소에 불과하였던 창업보육센터가 신사업창출촉진법 제정 이후 급속한 양적 확대를 거듭하여 2007년말 현재 체계적으로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보육센터 수가 190개소에 이르고 있음.
- 일본신사업진흥기관협의회(JANBO)가 190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음.
 - 창업보육센터의 시설정비 방법은 ‘신축’이 5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보수 36.3%, 임대 9.4%, 기타 2.3% 순으로 나타남.
 - 입주기업의 소프트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BI 매니저의 이전 근무처는 민간기업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11.4%, 독립행정법인 등 직원 8.9%, 공익법인 등 직원 7.9%, 기타 3.0% 순으로 나타남.
 - BI 매니저의 평균 연령은 49.8세이며, 근무 형태는 상주 매니저 57%, 준상주 20%, 순회 및 비정기순회 13%, 비상주 5%, 기타 5% 등으로 나타남.
 - BI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기업생존율은 약 90%였으며, 생존기업의 90%가 지역에 정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생존율 및 지역정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일본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소프트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보육능력이 취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BI 매니저의 실무능력향상 연수나 MBA·MOT 교육 강화, 매니저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음.

5)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일본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설립 관련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사상호 제한 폐지로 동일한 市町村(시군구)에서도 같은 건물에 있지 않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登記할 수 있게 된 결과, 상호 검색 및 결정에 따르는 시간이 절약됨.
 - 둘째, 최저자본금제도(기존 1,000만엔)를 폐지하여 1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발기설립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주금납입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이룸.
 - 넷째, 유한책임회사(LLC) 및 유한책임조합(LLP) 제도 도입으로 회사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창업자의 회사 선택의 폭 넓어지게 됨.

6)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이벤트 사업

- 일본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벤처국민포럼, 벤처프라자, 벤처박람회JAPAN2008 등의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창업·벤처국민포럼
 - 신규사업의 활성화, 다수의 벤처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일본은 창업경험자와 학자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관계자를 결집하여 ‘창업·벤처국민포럼’을 조직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발휘 및 고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동 포럼에서는 매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세미나·심포지움을 개최하며, 벤처박람회 행사와 동시 개최하여 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창함(경제산업성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등).

◦ 벤처박람회

-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일본 최대의 벤처매칭 이벤트사업으로서 벤처기업과 사업파트너, 투자자간 매칭사업을 추진함.
- 벤처박람회에서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벤처기업 경영자나 경영활동 실태를 일반 참석자들에게 알기쉽게 제시함으로써, 행사 참석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창업의식을 고양하고 있음.

◦ 벤처프라자

- 일본은 벤처기업이 투자자나 사업파트너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벤처프라자’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벤처프라자 사업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영자원(자금, 사업제휴, 판로 등)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경·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연6회 정도 개최되고 있음.

(3) 시사점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

- 일본의 경우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도전정신, 창조성 등)는 사람들의 의식·가치관이나 행동양식과 깊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배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일반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 육성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 이 같은 체계적인 기업가 교육을 실시해온 결과, 일본의 창업활동률(TEA) 지수(GEM)가 2004년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4> 참조).
- 우리나라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별로 차등화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목 및 교재 개발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련 경제단체, 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은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초·중학교생 >

- 기업 및 경제에 대한 개념 및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함.
- 창업 및 기업운영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게임 개발 및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사이버 창업경진대회 개최 방안을 강구함.

< 고등학교생 >

- 일본의 경력개발경로(Career-path), 인턴쉽과 같은 현장 중심의 창업교육 확대 방안을 강구함.

< 대학·대학원생 >

- 창업강좌를 확대하고, 폭넓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아울러, 창업대학원을 활성화하여 창업교육의 질을 향상함.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계자간 정보교환, 교육기법 공유 등을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벤처 창업자 등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기업가정신 교육강사로 채용하여 벤처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함.
- 기업가정신 교육과목 수강기회가 MBA, MOT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을 바꾸어, 학부학생, 사회인 등 폭넓은 계층에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일반인 >

- 「주말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운영을 통한 창업 촉진

- 일본 동경상공회의소와 같이 평일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주말 또는 일과 후 창업교실(강좌)를 개설하여 창업준비 기회를 부여함.
- 신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나 창업시 해결해야 할 세무·회계·자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2) 창업인프라 정비

□ 엔젤투자 및 엔젤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원

-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 세제개정에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
 - 즉, 회사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기업에 엔젤투자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 엔젤투자액(출자액 -5,000엔)을 그 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있는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우리 나라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10%(상한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을 소득공제제도 하는 방식에서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2,000만원 또는 총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엔젤투자자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엔젤자금 희망기업과 엔젤투자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엔젤투자정보망’을 구축하고, 엔젤네트워크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임.

□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 일본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BI의 소프트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보육능력 향상을 위해 MBA·MOT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참고로, BI 매니저의 68.8%가 민간기업 출신이며, 평균 연령이 49.8세로 나타나는 등 기업친화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 나라도 BI 매니저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대학원 등을 통한 교육 강화와 함께, 신규 BI매니저는 가능한 기업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충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의 문화 확산

- 일본의 경우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매년 창업·벤처 국민포럼, 벤처프라자, 벤처박람회 등의 이벤트 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벤처기업과 사업파트너, 투자자간 만남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엔젤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벤처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창업의식이 고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매년 실시하는 창업대전, 벤처코리아2008 등 행사개최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마련함과 아울러, 창업자와 투자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